

탄핵 정국에 호남 정치인·관료 ‘부침’

〈浮沈〉

박지원 정국 리드 존재감·한광옥 대통령 보좌 진땀

이정현 최대 위기·김현웅 법무 사퇴·임종룡 인준 차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호남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이었던 ‘동교동계’ 정치인들의 부침(浮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과 여당을 넘나들며 ‘탄핵 정국’을 이끄는 등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진도 출신인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 당론을 모으며,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총원무진 활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을 떠나 박 대통령 선거캠프에 합류했던 전주 출신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뒤 ‘피의자 대통령’ 보좌에 진땀을 쏟고 있다. 만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 실장은 비운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며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당 내외에서 대표직 사퇴의 거센 압박에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향후 검찰조사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

이 입증될 경우 자신의 ‘정치 생명’에 직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정부의 ‘호남 인사’소외 속에 서도 어렵사리 발탁된 중앙 부처 관료들의 운명도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고홍출신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장관은 29일 이임식을 갖고 1년 5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장관은 이임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할 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히고, ‘민주신불립’(民無信不立·윗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백성은 동요해 떨어져 나간다)을 강조했다.

보성 출신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어정쩡한 상태다. 위중한 현 경제상황을 진단

하고 대처하기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할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큰 과오없이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해 온 임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현 경제상황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하루라도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 대통령 탄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들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혐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부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말 이웃돕기 떡국떡 팔아요” 광주시 북구 일곡동(동장 김경중)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주민센터 앞 마당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판매할 떡국떡을 포장하고 있다. 이날 주민단체가 후원한 떡국떡은 20kg짜리 120가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교육청 누리 예산 오락가락에 뿔난 광주시의회

재의 요구했다 철회하자 추경 심의 중단

장휘국 교육감 뒤늦게 공식 사과 일단락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광주시의회가 29일 장휘국 교육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에 장 교육감이 뒤늦게 의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정치적 의도로 시의회

를 무시했다며 이날 예정이었던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를 중단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언급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비비 175억원과 광주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

지부담금 300억원, 지방교육세 보전 총당금 67억원 등 543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가용예산인 예비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자 ‘부동의’ 입장을 밝혔고 지난 2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의 이후 절차가 대법원 제소까지 가야 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이를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특히 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는 등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교육청이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고 정략적 의도로 재의와 철회 등 분란과 갈등만 일으켰다”며 비난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시의회에 예산편성에 대해 현장에서 반대하고 재의까지 요구하며 반발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접은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교육감은 오후 속개된 심의에 출석해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진도군 항만 배후지 매립토 선정 번복 예산 낭비

석탄재서 토사로 바뀌 말짱

계약자 반발 소송 가능성도

진도군이 쫓대없는 행정을 펴는 바람에 혈세 수십억원을 날릴 처지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43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부터 진도항 개발사업에 나섰다.

진도항에 55만7800㎡의 배후부지를 조성해 상업시설, 수산물가공·신재생에너지·복합해양단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진도항 배후지 성토재로 38만t의 토사 대신 경남 하동화력 발전소에서 38만t의 석탄재를 반입,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년여 기간 토취장 물색에 나섰으나 찾지 못하고 석탄재로 대체하면 성토 공사비도 당초 40억원에서 18억원으로 22억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산림훼손 방지, 공기 단축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매립재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석탄재가 환경에 나빠 매립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최근 돌연 ‘토사’로 방침을 바꿨다.

군 관계자는 “석탄재 유해 논란이 일어 토사로의 변경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9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석탄재 시료 분석을 의뢰해 적합판정을 받아 ‘석탄재’로 결정을 해 놓고 돌연 변경하는 바람에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석탄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까지 확보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출속행정은 석탄재 반입을 계약한 사업자의 반발을 불러와 자칫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큰 군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고문 위촉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동남갑·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이사장 지영모)의 고문에 위촉됐다.

29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11월 정례회에서 포럼 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국민의당 소속 3선 의원으로 기획예산처 장관과 호남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지영모 이사장은 “장 위원장이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경색된 한중 양국 기업들의 경제교류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서 “많은 장을 받았다.”

기업의 지지도 고문에 위촉된 만큼 양국 기업교류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은방 의장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 광역회장 선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9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정기회를 열고 이은방(사진) 광주시의회 의장을 협의회 광역회장에 선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응과 전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7년에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 13명과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12명 등 총 26명으로 창립됐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과 권역별 토론회 등

을 열며 관련 정책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고 낙후된 지방 발전을 촉구했다.

협의회에서 기초 의회 회장에 경남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 광역부회장에 부산시의회 백중현 의장, 기초부회장에 울산동구 장만복 의장이 선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본보 25일자 5면 ‘혼돈의 정국, 해법을 묻는다’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인터뷰 내용 중 “가능하면 종교계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부분을 “가능하면 종교계가 정치에 개입하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로 바로잡습니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